

# 大谷 〈成運誌石〉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Memorial Stones of the Seong Un, Dae Gok

朴文烈 (Park, Moon-Year)\*\*

## ◁ 목 차 ▷

1. 緒言	3.1 大谷의 家系
2. <成運誌石>의 形態와 誌文	3.2 大谷의 行歷
2.1 <成運誌石>의 形態	3.3 大谷의 後嗣子 金可幾
2.2 <成運誌石>의 誌文	4. 結論
3. 大谷 成運의 家系와 行歷	<참고문헌>

## <초 록>

본 연구는 大谷 〈成運誌石〉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誌石은 被葬者의 本貫과 諱,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家族關係, 墓의 位置와 坐向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동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는 金石學資料이다.

(2) 〈成運誌石〉의 被葬者인 成運의 자는 健叔이며 호는 大谷이다. 연산군 3년(1497) 정월에 출생하여 선조 12년(1579) 5월에 향년 83세로 卒去하기까지 평생 報恩에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한 山林學者이다.

(3) 〈成運誌石〉의 標題는 '有明朝鮮國通訓大夫司宰監正成公墓誌'이며, 誌石은 7매의 磁版으로 구성되어 있고 誌文은 매판의 단면에만 기록되어 있다.

(4) 〈成運誌石〉에는 誌文의 찬술과 誌石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 誌文은 大谷의 嗣子인 金可幾가 찬술한 것이 아닌가 한다.

(5) 〈成運誌石〉에 나타나는 大谷의 後嗣問題는 당시는 물론 후세 禮家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宋時烈과 尹宣舉는 大谷의 後嗣問題에 있어 다소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成運誌石〉은 被葬者인 大谷 成運의 전기자료로 그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관리·보존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要語: 成運, 大谷, 誌石, 金可幾, 後嗣

\* 이 論文은 2016-2017學年度에 〈清州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가 支援하는 學術研究造成費(特別研究追加課題)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清州大學校 人文大學 文獻情報學科 教授(parkmoon@cju.ac.kr)

■ 접수일: 2017년 3월 8일 ■ 최초심사일: 2017년 3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on the memorial stones of Seong Un, Dae Gok.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Memorial stones are the epigraphic materials which contains the records of buried person such as one's family clan, name, pedigree, activities, the date of birth and death, family relations, and the location or the aspect of grave etc.

(2) According to the memorial stones of Seong Un, Seong Un was also called Geon Suk or Dae Gok. He was born in January 1497, the 3rd year of King Yonsan's reign, and died at the age of 83 in May 1579, the 12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Having lived in Boeun for his whole life, he was constant in his devotion to learning.

(3) The memorial stones of Seong Un consist of 7 sheets in total, and the title is written as Yumyeong Joseonguk Tonghundaebu Sajegamjeong Seonggong Myoji. The main records are engraved on one sides of each stone's plane.

(4) There were no records on the memorial stones of Seong Un who wrote the main contexts and how the memorial stones were created. It is supposed that Kim Ga Gi, the Successor of Dae Gok, wrote and edited the contexts of inscriptions by referring to Daegokchesa Seongun Jolgi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and Dangsuk Daegokseonsaeng Myogalgi of Seong Hon.

(5) An exact family relationship about descendants of Dae Gok had often been subject to arguments among the scholars later. Song Si Yeol and Yun Seon Geo were representative scholars who seemed to have some different opinions on inheritable matters of Dae Gok.

(6) As biographic materials of Seong Un, the memorial stones of Seong Un can be used for valuable informative materials to analysis him and his learning. For these reasons, the memorial stones of Seong Un constantly need to study, manage and preserve by designating as a local cultural properties.

Key words: Seong Un, Dae Gok, Memorial Stone, Kim Ga Gi, Successor

## 1. 緒言

誌石<sup>1)</sup>은 卒去한 人士의 人的事項과 墓의 位置 등을 기록하여 墓에 묻은 石版이나 陶版이다. 일반적으로 誌石에는 被葬者의 本貫과 諱,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家族關係, 墓의 位置와 坐向 등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同時代의 歷史的 事實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는 金石學資料이다.

大谷 成運(1497-1579)은 中宗·明宗·宣祖朝의 대표적인 山林學者의 한 사람으로 明宗 즉위년(1545)에 그의 兄 成遇(1495-1546)가 乙巳土禍(1545)로 禍를 입자, 忠淸道 報恩의 俗離山 자락의 鍾谷에 隱居하면서 花潭 徐敬德(1489-1546), 南冥 曹植(1501-1572), 土亭 李之菡(1517-1578) 등과 交유하며 學問에 精進한 인물이다.

<成運誌石><sup>2)</sup>은 磁版에 楷書體의 墨書로 製作된 誌石으로 被葬者가 大谷 成運임을 알 수 있을 뿐, 誌文의 撰者와 撰述時期 및 誌石의 製作者와 製作時期 등은 알 수 없다.<sup>3)</sup>

本稿는 <成運誌石>의 現狀과 誌文에 나타나는 內容을 중심으로 確認되는 事實들을 考察하고 整理함으로써 大谷 成運 研究의 기초자료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2. <成運誌石>의 形態와 誌文

<成運誌石>의 被葬者인 大谷 成運(1497-1579)의 本貫은 昌寧이고 字는 健叔이며, 號는 大谷·虛父·三山病人·夏山後學 등이고 諡號는 文景이다. 그의 墓所<sup>4)</sup>는 忠淸道 報恩의 鍾谷<sup>5)</sup>이다.

- 1) 誌石은 구체적으로 墓誌石이라고도 하나 文化財名으로는 一般의 誌石으로 사용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形態의 誌石으로 사용될 때는 '誌石'으로, 內容의 誌石으로 사용될 때는 '誌文'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 2) 誌石의 本來 名稱은 '有明朝鮮國通訓大夫司宰監正成公墓誌'이나 本稿에서는 <成運誌石>으로 統一하여 使用하고자 한다.
- 3) 撰者不明, <有明朝鮮國通訓大夫司宰監正成公墓誌>. 磁版. [製作地不明]: [製作者不明], [製作年不明].
- 4) 大谷의 墓所와 墓碣은 忠北 報恩郡 報恩邑 城足里 山35에 所在하며, 현재 忠北記念物 第70號로 指定(1986. 4. 28)되어 管理되고 있다.
- 5) 鍾谷: 한글 지명으로는 '복실'이며, 忠北 報恩郡 報恩邑의 북동쪽에 있다. 마을 뒤에 '복산'이라는 종모양의 작은 산이 있어 예로부터 이 산에서 북소리가 은은히 들리면 世居하고 있는 慶州金氏 門中에서 及第者가 나왔다 하여 '복산'이라 부르면서부터 鍾谷리라는 지명이 유래하였다. 慶州金氏의 集成村이며 文化재로는 金基瑞·金玟泰의 孝子門과 宜寧南氏 및 高靈申氏의 烈女門 등이 있다.

### 2.1 <成運誌石>의 形態

<成運誌石>의 形態事項을 摘錄하면 다음과 같다.

有明朝鮮國通訓大夫司宰監正成公墓誌 / [撰者不明] ; [書寫者不明]. -- 磁版. -- [製作地不明] ; [製作者不明], [製作年不明].

全7枚 : 每面 11行15字 內外 註雙行 ; 24.8×18.2×1.0cm 內外. 白磁單面 楷書體墨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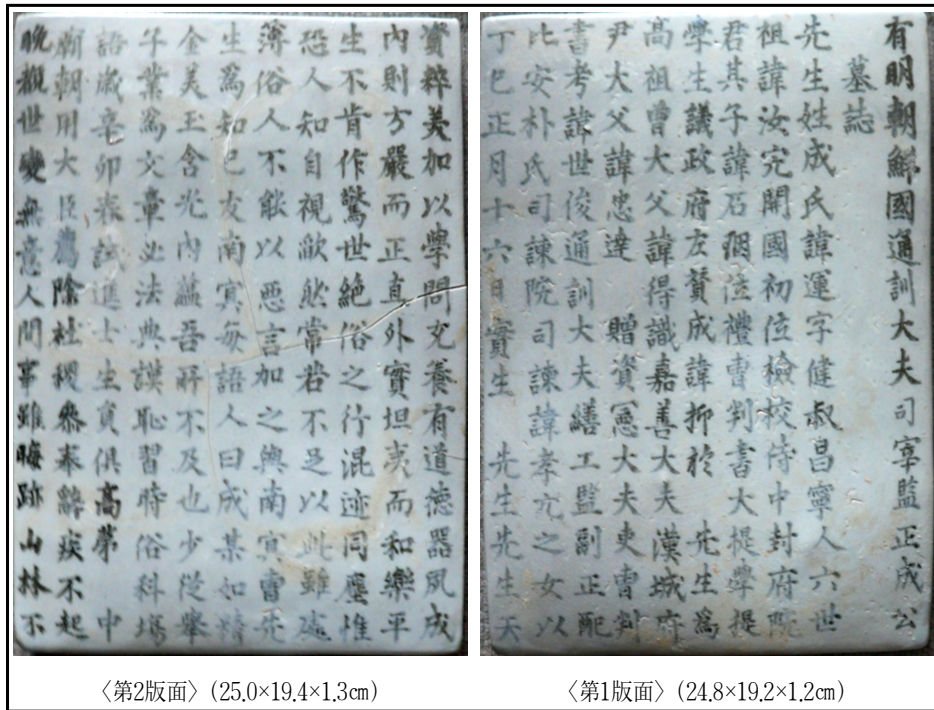
被葬者: 大谷 成運(1497-1579)

規 格: 第1版(24.8×19.2×1.2cm), 第2版(25.0×19.4×1.3cm), 第3版(24.8×18.2×1.0cm), 第4版(24.8×18.9×1.2cm), 第5版(25.0×19.5×1.3cm), 第6版(24.8×19.3×1.2cm), 第7版(25.2×19.3×1.2cm).

版後面: '第幾'(第1-6版), '第七終'(第7版)

<成運誌石>의 形態를 寫眞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寫眞 1> 大谷 <成運誌石>의 形態



求聞遠而朝野屬目皆知其為隱德君子也。明廟朝拜為光陵參末乃謝恩就職不數日解絃徑歸故山即報恩種谷里也。嘉靖丙寅有教舉遺逸以六竹俱備擢先生為通禮院引儀為義盈庫主簿又為造紙署司紙先生應召至京師留邸一月閉門謝客賜對之日以疾丐休上遣醫診視慰諭憐至先生上章陳謝終不屈隆慶二年今上嗣服留意山林屢書徵召三年已巳拜為尚瑞院判官四年庚午又拜儀賓

府都事至萬曆元年召命尤勤至拜至三促先生赴闕且拜司膳寺正先生堅執素節復上疏自陳年老非不能報效之意是年十月上以先生家貧未有寒衣賜以表裏一襲從侍臣請也六年五月更除司宰監正適歲饑上又命賜之粟又以年老不堪菜茹特賜鷹俾具肉味先生每得恩命輒惕然驚惶至數日不能解先生之學以居教為本以踐實為先容貌必莊居處必恭儼然肅然如對神明雖在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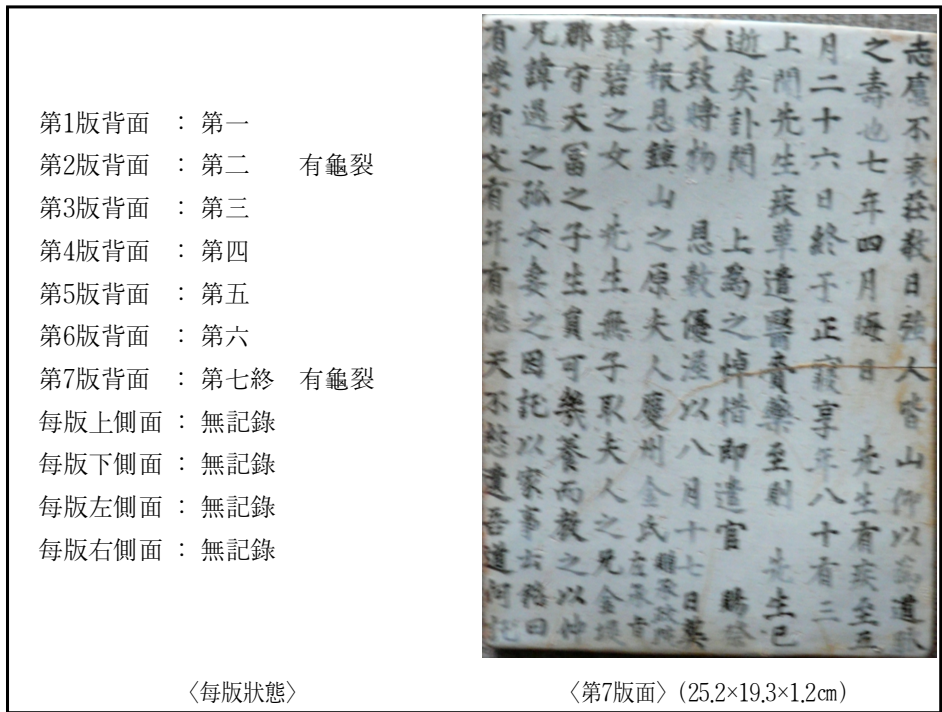
<第4版面> (24.8×18.9×1.2cm)

<第3版面> (24.8×18.2×1.0cm)

室幽獨之中家人子弟未常見其不正冠不束帶也學者有患容念安起者先生諒之曰是由持敬之功不篤耳若涵養有素而此心整然疑空則外邪不容而妄想無自而作矣先生以為外人事而談性命非為己之學故其工夫着力常於人事上居多自事親敬長以至日用尋常無一不自踐履中來也曹先生少時才氣超邁議論過高見先生為行平實釋然喜曰道在是矣晚年道詣益深圭角渾然人與之接但見顏色謙恭辭氣和易而不自覺心醉而誠服也其於人境紛華泊然不以屑意家甚清貧布褐不完簞瓢屢空晏如也雅好佳山水嘗於離山之麓卜得道暹地其名曰大谷潞開古澗其流紺潔先生生濯纓而樂之尊精廬一間左右圖書每佳時令節騎牛信馬往來無虛日常令一短僮自隨觸景寓懷形於吟詠吟罷必酌酒三兩行微醺乃已意倦則時或手撫桐絃以瀉幽興如是者四十年樂而忘憂不知老之將至也行年八十

<第6版面> (24.8×19.3×1.2cm)

<第5版面> (25.0×19.5×1.3cm)



〈成運誌石〉의 標題는 ‘有明朝鮮國通訓大夫司宰監正成公墓誌’이며 誌文의 撰者와 撰述時期 및 書寫者와 書寫時期 등은 알 수 없다.

誌石은 도합 7매의 磁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誌文은 每版의 單面에만 楷書體로 기록되어 있고 誌石의 製作地와 製作者 및 製作時期 등은 알 수 없다.

誌石의 每後面에는 ‘第幾’의 枚次가 기록되어 있으며, 제7판의 後面에는 ‘第七終’의 전체 枚數와 終結이 기록되어 있다.

## 2.2 〈成運誌石〉의 誌文

한편 大谷 〈成運誌石〉의 誌文과 관련이 있는 墓道文으로는 『朝鮮王朝實錄』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 중의 〈處士成運卒記〉<sup>6)</sup>, 〈徵士成運卒記〉<sup>7)</sup>, 〈大谷處士成運卒記〉<sup>8)</sup> 등과 牛溪 成渾(1535-1598)의 〈堂叔大谷先生墓碣記〉<sup>9)10)</sup>, 同春堂 宋浚吉(1606-1672)의 〈大谷成先生行狀〉<sup>11)</sup>, 尤庵 宋時烈

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12年 5月 1(乙巳)日條.  
 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12年 12月 6(丁丑)日條.  
 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13年 6月 7(乙巳)日條.  
 9)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말며, 祭祀에 祭饌을 豊盛히 하지 말며, 墓道에 表石을 세우지 말라는 遺戒가 있었다.”<sup>21)</sup>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尤庵은 〈大谷成先生墓碣銘〉에서 “墓道에 碑를 세우지 말라는 선생의 遺命 때문에 牛溪先生이 몇 마디 寂寥한 말을 碑의 後面에다 새겼을 뿐<sup>22)</sup>이었는데, 지금 고을의 선비들이 瘞들을 준비하여 글을 청하여 왔다. 내가 선생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자 그들은 한결같이 대부분의 선비들이 바라는 바라고 하여 어찌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銘을 한다.”<sup>23)</sup>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成運誌石〉의 誌文의 撰述과 誌石의 製作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상의 同春堂과 尤庵의 기록에서 보듯이, 大谷의 遺戒와 遺命이 잘 준수되었던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表 1〉을 통하여 볼 때, 〈成運誌石〉의 誌文은 아마도 大谷의 後嗣子인 一丘堂 金可幾(1537-1597)에 의하여 『朝鮮王朝實錄』의 〈大谷處士成運卒記〉와 牛溪 成渾의 〈堂叔大谷先生墓碣記〉 등을 바탕으로 찬술된 것이 아닌가 한다.

### 3. 大谷 成運의 家系와 行歷

#### 3.1 大谷의 家系

〈成運誌石〉의 被葬者인 大谷의 家系를 『昌寧成氏族譜』<sup>24)</sup>와 『昌寧成氏文行列傳』<sup>25)</sup> 등의 관련 자료들에 나타나는 바를 살펴 〈表〉로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21) 宋浚吉 著, 『同春堂先生文集』, 卷20. 行狀. ‘大谷成先生行狀’條.

“... 己卯四月 疾作 以五月廿六日 易簣 享年八十有三 遺戒葬勿用石灰 祭毋豐饌 墓道勿立表石 ...”

22) 이는 成渾의 〈堂叔大谷先生墓碣記〉를 지칭하는 것이다.

23) 宋時烈 著, 『宋子大全』, 卷172. 墓碣.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條.

“... 先生遺命勿立墓刻 牛溪先生只以寂寥數語 記其表陰矣 今者鄉之章甫 伐石請辭 余曰 非先生志也 皆曰 雖然 多士之願也 遂爲之銘曰 空谷之窈兮 可棲而息 古澗之清兮 可飲而濯 先生之心兮 匪此之樂 惟理之奧兮 我玩而明 惟德之懿兮 我服而行 惟彼隱者兮 或踰或閉 先生不然兮 惟義之比 不潔而亂兮 焉有所倚 通而不流兮 介而不激 穆然其居兮 溫然其即 先生之道兮 疇敢瑕謫 我思其由兮 惟曰有學 嗟後之人兮 其母曰沮溺之儔匹.” 〈成夏鼎 編, 『昌寧成氏世德錄』, 高敞: 晚翠堂, 1937. 卷2. 墓碣銘, 張11A-14A. ‘大谷成先生(運)墓碣銘(并序)’條.>

24)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木活字本, 羅州: 成濯, 昭和 4(1929). 全2卷.

25) 成斗鎬 等編, 『昌寧成氏文行列傳』, [昌寧]: [牛項齋], [高宗 37(1900)].

<表 2> 大谷 成運(1497-1579)의 系譜

成仁輔(昌寧始祖) - 松國(02) - 公弼(03) - 君美(04) - 汝完(05) - 石因(06) - 抑(07) - 得識(08) <sup>26)</sup> - 忠達(09) <sup>27)</sup> - 世俊(10) <sup>28)</sup> - ①②③④ ① - 近(11) <sup>29)</sup> - 允誠·允謙(12) ... ② - 遠(11) <sup>30)</sup> - 允諧(12) ... ③ - 遇(11) <sup>31)</sup> - 允德 <sup>32)</sup> ·女金可幾 <sup>33)</sup> (12) ... ④ - 運(11, 文景公) <sup>34)</sup> ... (無後而後囑金可幾)
---

大谷은 昌寧의 시조인 成仁輔(?-?)의 10세손으로 증조는 漢城左尹을 역임한 成得識(?-?)이고 조부는 金浦縣令을 역임하고 吏曹判書에 추증된 成忠達(?-?)이다.

大谷은 繕工監副正을 역임한 부친 成世俊(?-?)과 司諫院 大司諫을 역임한 比安 朴孝元(?-?)의 따님과 슬하에서 4男 중의 막내로 출생하였다.

### 3.2 大谷의 行歷

<成運誌石>의 被傳者인 大谷 行歷을 牛溪의 <堂叔大谷先生墓碣記><sup>35)</sup>, 尤庵의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sup>36)</sup>, 同春堂의 <大谷成先生行狀><sup>37)</sup>, 『朝鮮王朝實錄』 등의 기사를 바탕으로 <表>로

- 26)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1B-12A, '得識'條.  
"得識: 漢城左尹 配居昌慎氏 全羅監司幾女 墓高陽元堂面降仙齋宮洞."
- 27)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1B-12A, '忠達'條.  
"忠達: 金浦縣令 贈吏曹判書 配白川趙氏 僉知元壽女 墓上全良坐."
- 28)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2A, '世俊'條.  
"世俊: 字彥卿 號松菴 以參奉登文科 副正 配比安朴氏 大司諫孝元女 墓高陽降聖洞 有碣石."
- 29)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2AB, '近'條.  
"近: 字可遠 號敬齋 力學不懈 配文化柳氏 墓上全."
- 30)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2AB, '遠'條.  
"遠: 字中慮 有學行."
- 31)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2AB, '遇'條.  
"遇: 學行薦參奉 明廟朝尹元衡論啓以公 乙巳被禍郭珣輩交結之人 請拿鞠受刑 死於杖下時人痛之 其時委任李苞也."
- 32)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2AB, '允德'條.  
"允德: 監役 配韓山李氏廷堅女."
- 33)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2B, '女金可幾'條.  
"女金可幾: 郡守."
- 34)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羅州: 成濯, 昭和 4(1929), 卷1, 張12B, '運'條.  
"運: 字健叔 嘉靖辛卯中司馬兩試 以隱逸學行為世大儒 號大谷先生 隱居報恩鍾谷 明宣兩朝屢徵不起 萬曆癸酉超拜司瞻寺正不起 己卯五月二十六日卒 享年八十三 无育 文集行于世 配金氏贈承旨碧女 墓報恩鍾山."
- 35)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36) 宋時烈 著, 『宋子大全』, 卷172, 墓碣,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條.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表 3> 大谷 成運(1497-1579)의 行歷

年代	朝 代	月 日	年歲	內	容	備 考
1497	연산	03 01 16	01	漢城에서 出生하다		38)39)
1531	중종	26	35	司馬試에 合格하다		40)
1537	중종	33	42	後日의 嗣子인 金可幾가 出生하다		41)
1540	중종	35 12	44	〈朴承旨(薰)墓碣〉을 撰述하다		42)
1542	중종	37	46	社稷署參奉에 薦擧되었으나 不仕하다		43)
1545	명종	즉	49	仲兄 成遇가 被禍되자 妻鄉인 報恩의 鍾谷에 隱居하다		44)
1553	명종	08	57	光陵參奉에 除授되었으나 數日만에 故鄉으로 돌아오다		45)
		夏		〈大旱賦〉를 撰述하다		46)
1556	명종	11	60	希庵 金泰巖의 墓碣을 撰述하다		47)
1562	명종	17 秋	66	〈送田上人〉詩를 撰述하다		48)
1563	명종	18 05 15	67	〈請文官邑宰疏〉를 代作하다		49)

- 37) 宋浚吉 著, 『同春堂先生文集』, 卷20. 行狀. '大谷成先生行狀'條.
- 38)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先生姓成 諱運 字健叔 號大谷 昌寧人 … 考諱世俊 繕工監副正 妣比安朴氏 司諫孝元之女 以弘治丁巳正月既望 先生先生于京師."
- 39) 宋浚吉 著, 『同春堂先生文集』, 卷20. 行狀. '大谷成先生行狀'條.  
"… 以弘治丁巳正月十六日 生先生于漢城之第 …"
- 40)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嘉靖辛卯 選登上庠 …"
- 41)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卷4. 張1AB. '可幾'條.  
"可幾: 字士元 嘉靖丁酉生 萬曆己卯生員 官魯城縣監 丁酉九月十七日卒 贈左承旨 …"
- 42)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下. 碣銘. '朴承旨(薰)墓碣'條.  
"… 嘉靖十九年三月十二日 … 享年五十有七 附葬于川內山先墓側 禮也 …"
- 43)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壬寅 用大臣薦 授社稷署參奉不就 …"
- 44) 李肯翊 著, 『燃藜室記述』, 卷11. 明宗朝故事本末. 明宗朝遺逸. '成運'條.  
"… 己卯斬伐之後 儒服弊地 公作詩悼之 遂歸俗離山下爲終計焉 (娶配於報恩 因居之焉) 寓居鍾谷 … 公生有美質 早脫世網 其兄遇遭乙巳之亂 死於非命 自次益無意於世名 遁居俗離 …"
- 45)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癸丑 除光陵參奉 供職數日 棄歸 …"
- 46)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中. 雜著. '大旱賦(并序)'條.  
"歲癸丑 春暨夏不雨 … 時予在村舍 日擊其事 心竊傷之 乃爲之賦 …"
- 47)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下. 碣銘. '希庵(金泰巖)墓碣'條.  
"… 公得疾 經一宿而卒 蓋嘉靖三十三年五月五日也 享年七十有八 附葬先人塋 …"
- 48)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中. 詩. '送田上人(并序)'條.  
"上人 士家胤也 少失所怙 爲僧入頭流讀經 … 致吾報書 亦不敢辭 驢以一言 …"
- 49)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中. 雜著. '代人作(請文官邑宰疏)'條.  
"癸亥五月十五日 道內報恩三年山書院儒生等 謹齋沐百拜上書于監司相公閣下 …"

1564	명종 19	68	丈人 金碧의 妻인 丈母 柳氏의 墓碣을 撰述하다	50)
1566	명종 21	06 21	70 '經明·行修'의 遺逸로 薦擧되다	51)
		07 26	藥과 飲食物이 下賜되다	52)
		08 16	遺逸인 公에게 廩料가 支給되다	53)
		08 28	通禮院引儀에 除授되다	54)
		09 03	義盈庫主簿에 除授되다	55)
		09 10	造紙署司紙에 除授되었으나 곧 辭職上疏를 올리다	56)57)
		09 24	辭職上疏를 올리자 國王이 內醫院에서 藥을 지어 보내다	58)59)
		10 04	報恩의 鍾谷으로 下鄉하다	60)61)

- 50)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下, 碣銘, '柳氏(金碧妻)墓碣'條.  
 “… 嘉靖二十五年 以子貴封淑夫人 三十四年十一月晦日 以疾終 明年 從葬承旨公墓左 墓在酒城山 … 後八年 郡守君與其弟天宙謀不朽 伐石篆辭 以告來世 銘曰 …”
- 5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6月 21(庚辰)日條.  
 “吏曹啓曰 生員進士中六條俱備人 該曹議于四大臣 得四五人 量用勸勵事 前日有傳教矣 … 前參奉成運[字健叔 擧進士 成守琛之從弟也 爲人溫恭尊雅 稟度天然 自無圭角占 未嘗言人過惡 中年猶爲親應科 母沒遂廢家居 報恩縣 愛玩山水 以琴書詩酒自遣 取與有義 足迹不到官門 一鄉之人咸推仰之 其授參奉 詣闕謝恩 不就職]·前別坐韓脩·前參奉南彥經·前參奉林薰·進士金範 俱有才行 雖有未中司馬者 … 故竝啓 但此人中或有年老者 議于大臣 則皆以陸敘六品爲當云 取稟 傳曰 如啓.”
- 5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7月 26(乙卯)日條.  
 “政院啓曰 進士成運得病 趁未上來云 … 傳曰 予疾未快 心神茫昧 此事欲言 而未及言之 啓意當矣 相當藥劑 送加調理事 監司及成運處下諭 且病中可食之物題給事 竝諭于監司.”
- 5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8月 16(甲戌)日條.  
 “上御朝講 … 成運既已乘傳至都 然草野之人 時無見除官職 僑寓旅舍 資給亦艱 自古好賢之主 必有養賢之誠 使該曹量宜廩給 何如 … 傳于政院曰 大司憲朝講所啓 成運廩給之事 至當 甚合予意 令該曹量宜題給 (成運時年七十 廉介智守 非義之事 一毫不爲 至是雖詣闕上恩 而托稱老病 上疏徑去 終不赴職 人稱其去就得中 爲六人之最云 戶曹依七品之俸而題給 是日別遣中人于運家 特賜酒饌御需也 命除謝恩 其數準於平時三公賜送之規 又優焉).”
- 5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8月 28(丙戌)日條.  
 “以李鐸爲漢城府判尹 … 李增·具鳳齡爲弘文館修撰 成運爲通禮院引儀 …”
- 5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9月 3(庚寅)日條.  
 “以金就文爲司憲府執義 … 辛應時爲弘文館副修撰 成運爲義盈庫主簿 …”
- 5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9月 10(丁酉)日條.  
 “以沈光參爲漢城府判尹 … 成運爲造紙署司紙 …”
- 5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9月 19(丙午)日條.  
 “司紙成運上疏曰 伏以 治國莫善於求賢 尤莫善於求賢而得賢 … 敢用乞身 徑欲辭歸 臣之罪亦大矣 席藁私室 以待斧鉞之至 …”
- 5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9月 24(辛亥)日條.  
 “司紙成運上疏曰 伏以 … 此臣區區之懷 而病奪之志 卒不得在官 戀瞻闕庭 未忍亟退 謹昧死以聞 … 傳于政院曰 遣內醫于成運家 其令看病以啓.”
- 5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9月 24(辛亥)日條.  
 “內醫看病而來 傳于政院曰 相當藥 令內醫院劑送于成運 …”
- 6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10月 4(辛酉)日條.  
 “… 成運素有疾病 冬寒則不出戶外 頃在旅舍疾作 雖服內賜之藥 未見其效 故欲歸死本土 載歸于鄉云 …”

		10 21		遞職이 取稟되고 遞職되다	62/63)
1567	선조 즉	10 05	71	朝廷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다	64/65)
		11 17		召對에서 公이 言及되다	66)
1568	선조 01	01 27	72	國王이 備忘記로 부르다	67)
1569	선조 02	08 01	73	尙瑞院判官으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다	68)
1570	선조 03		74	後日의 嗣孫 金德民이 出生하다	69)
1571	선조 04		75	國王이 監司에게 命하여 存問하게 하고 米肉을 내리다	70)
1572	선조 05	04	76	南溟 曹植의 <墓碣>과 <祭文>을 撰述하다	71/72)
1573	선조 06	01 01	77	災變을 만나三公의 請에 따라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다	73/74)
		08 01		3品職에 除授되었으나 곧 辭職을 上疏하다	75/76)

- 6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10月 7(甲子)日條.  
“上御思政殿 召見尙瑞院判官曹植·玉果縣監金範 … 成運以老成稱 甚爲鄉人所敬 以老疾辭歸 ….”
- 6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10月 21(戊寅)日條.  
“… 吏曹啓曰 司紙成運·尙瑞院判官曹植 皆已下去本鄉 遞差乎 取稟 傳曰 勿遞 (成運羸病已甚 再疏之後 乃歸鄉 曹植則入對數日 使拂衣還山 …).”
- 6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12月 2(戊子)日條.  
“… 傳曰 曹植·成運 移付閑官 … 今若仍任 褒貶等第爲難 敢稟 傳曰 姑遞.”
- 6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卽位年 10月 5(丙戌)日條.  
“召處士曹植·成運 前郡守李恒等 皆不至 … 至是 朝臣交薦之 皆下書特召 ….”
- 6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卽位年 10月 5(丙戌)日條.  
“… 奇大升入侍 … 成運亦遺佚之士也 年過七十 臣未知其學如何 大抵恬淡自守人也 ….”
- 6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卽位年 11月 17(戊辰)日條.  
“上召對于丕顯閣 … 成運亦遺佚之士也 先王朝 承召上來 而辭病退去 年已七十餘矣 此人則無因聞之 而大概 恬淡自守者也 一時賢者 不一其人 而如李滉則表表者也 ….”
- 6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1年 1月 27(丁丑)日條.  
“備忘記傳曰 … 亦可賢賢納諫 帝王之美 更請曹植 竝請成運 可也.”
- 6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2年 8月 1(壬寅)日條.  
“以成運爲尙瑞院判官 召不至.”
- 69)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卷4. 張1A-2A. ‘德民’條.  
“德民: 字邦良 隆慶庚午生 受業於趙重峰 … 號澗西齋 有遺稿 孝廟辛卯十二月十日卒 壽八十二 贈戶曹參判 配高靈申氏 … 癸酉生 萬曆丁酉亂遇賊殉節即九月十七日也 翌年戊戌命旌 ….”
- 70)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今上初 特徵累拜官不至 隆慶辛未 令監司存問給米肉 ….”
- 71)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下. 碣銘. ‘南溟先生(曹植)墓碣’條.  
“… 植名而樾仲其字也 … 享年七十有二 卜宅于山天齋後山 葬用四月六日 ….”
- 72) 曹植 著, 『南冥先生集』, 卷3. 附. 祭文. ‘祭文(成大谷)’條.  
“維隆慶六年壬申四月日 成運謹遣金可幾 敬祭于故宗親府典籤曹君之靈 ….”
- 7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6年 1月 1(壬午)日條.  
“白虹貫日 下教求言 召成運·李恒 使乘傳上來 將問弭災之策 皆辭不至.”
- 7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6年 1月 26(丁未)日條.  
“三公啓曰 … 臣等 不勝感激 前都事成運·副正李恒 屏居林下 讀書求志 學術德行 素爲士林矜式 而虛老草野 豈不爲明時之憾 請成運李恒處 特降天札 以誠召之 ….”
- 7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6年 8月 1(戊申)日條.

		10 01		再三 불려도 辭讓하자 表裏와 사냥용 매(鷹) 등이 下賜되다	77)78)
		11 26		臺官의 除授를 留保하다	79)
1575	선조 08		79	國王이 醫員을 보내고 藥이 下賜되다	80)
1578	선조 11	05 02	82	司宰監正에 除授되고 쌀이 下賜되다	81)82)
1579	선조 12	05 26	83	卒去하여 報恩 鍾谷에 葬事하자 祭文이 下賜되다	83)84)85)86)
		07 01		左議政 蘇齋 盧守愼이 公의 贈職을 請하다	87)
		08		牛溪 成渾에 의하여 <堂叔大谷先生墓碣記>가 撰述되다	88)
1595	선조 28	06 24	+16	位版을 옮겨 奉安하다	89)
1596	선조 29	秋	+17	嗣子 一丘堂 金可幾에 의하여 文集의 編纂되다	90)

- “成運·韓脩·南彥經 皆拜三品職 不次擢用也.”
- 76)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卷中. 雜著. ‘辭職上疏’條.  
“癸酉七(九)月十六日 前都事臣成運 謹齋沐百拜 獻言于主上殿下 ….”
- 7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6年 10月 1(戊申)日條.  
“復召成運 不至 上聞運家貧 未有寒衣 賜表裏一襲.”
- 78)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萬曆癸酉 下書特召者三 皆上章辭 超拜司瞻寺正 賜表裏一襲 命本道海郡輸送周急之資 且賜鷹 ….”
- 7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6年 11月 26(壬寅)日條.  
“上答執義辛應時曰 頃者 成運首擬 固是賢人 但聞年老且病 難於上來 … 經明行修 可以從仕 多有其人 乃以單人獨擬 有若擅於自除 此又不可長之一漸.”
- 80)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乙亥得疾 上遣醫資藥 ….”
- 8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11年 5月 2(壬子)日條.  
“以成運拜司宰正 林薰拜掌樂正 金千鎰拜任實縣監.”
- 82)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戊寅 拜司宰監正 又命賜粟 ….”
- 83)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己卯五月 疾篤 上命醫馳視未至 以其月二十六日卒 享年八十有三 命賜祭賻 官庀葬事 八月十七日 葬于鍾山 墓在舊廬南三里 ….”
- 8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12年 5月 1(乙巳)日條.  
“處士成運卒 運字健叔 學者稱大谷先生 ….”
- 8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12年 12月 6(丁丑)日條.  
“徵士成運卒 [五月庚午日] 字健叔 自少力學 隱居三山縣之大谷 累被徵召 終不就列 壽八十三 學者稱爲大谷先生 上遣禮官賜祭 其祭文曰 ….”
- 86)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附錄. ‘賜祭文’條.  
“萬曆己卯六月日 自上賜先生祭文 ….”
- 8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12年 7月 1(乙巳)日條.  
“上御經筵 … 時 禮官議成運贈爵 上問盧守愼 對曰 曹植·李恒·成運 同時賢士 … 成運溫雅簡默 超然不嬰世故 常謙讓自守 爲一世完人 … 今先李恒 而次成運 贈職當矣.”
- 88) 成渾 著, 『牛溪先生年譜』, 卷1. 牛溪先生年譜. ‘宣祖 12年 8月’條.  
“哭成大谷 (大谷諱運 聽松先生從弟 是歲 考終于報恩之鍾山 先生爲文遣人祭之 又撰其墓碣記).”
- 8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28年 6月 24(乙丑)日條.  
“忠清道觀察使尹承勳書狀 大概據報恩縣監牒報 五聖八賢位版 壬辰變初 奉安襄內 埋置于三年山書院後 今則時勢稍異 書院內金淨·成運祠堂齋室完全 位版移安 何如 禮曹回啓 依狀啓 遣視設祭而移安.”

1597	선조 30	09 17	+18	嗣子 金可幾와 子婦 및 孫婦가 丁酉亂에 凶賊의 禍를 입다	91)92)
1603	선조 36	02	+24	嗣孫 澗西齋 金德民에 의하여 文集이 刊行되다	93)
1611	광해 03	05 22	+32	嗣孫 金德民이 鄭仁弘의 上疏를 論駁하다	94)
1612	광해 04	01 16	+33	忠淸監司가 公의 墓가 盜掘을 아뢰다	95)
1624	인조 02	01 06	+45	楸灘 吳允謙의 建議로 褒贈이 允許되다	96)
1656	효종 07	09	+77	同春堂 宋浚吉에 의하여 〈行狀〉이 撰述되다	97)
1663	현종 04		+84	尤庵 宋時烈에 의하여 〈大谷成先生墓碣銘〉가 撰述되다	98)

大谷은 연산군 3년(1497) 정월 16일에 漢城에서 출생하여 중종 26년(1531)에 35세의 늦은 나이로 司馬試에 합격하였다. 그 뒤로 중종 37년(1542)에 이르기까지 己卯士禍(1519)로 被禍되어 오랜 流配生活 끝에 鄉里인 淸州에서 은거하다 卒去한 江叟 朴薰(1484-1540)의 墓碣을 짓는 등 10여년 동안을 學問에만 전념하며 세월을 보냈다.

중종 37년(1542)에 46세의 늦은 나이에 大臣의 천거로 社稷署參奉에 제수되었으나 不仕하였으며, 명종 즉위년(1545)에 왕실의 외척인 大尹과 小尹의 반목을 계기로 乙巳士禍(1545)가 일어나고 설상가상으로 仲兄인 成遇(1495-1546)가 이에 연루되어 杖死되는 禍를 입게<sup>99)</sup> 되자, 시를 지어

- 90)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序, '大谷集序(柳根)'條.  
 “先生隱居三山縣之大谷 屢蒙徵召 終不就列 享年八十有三 … 歲丙申秋 來涖此道也 金君可幾方在三山 蓋欲與之謀所以刊行先生詩集 而時屬多艱 力所未遑 常慊慊也 七年之後 又忝是職 而金君已下世 ….”
- 91)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卷4. 張1AB, '可幾'條.  
 “可幾: 嘉靖丁酉生 … 丁酉九月十七日卒 贈左承旨 … 配全州柳氏 … 丁酉九月十七日卒 ….”
- 92)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卷4. 張1A-2A, '德民'條.  
 “德民: … 隆慶庚午生 … 號澗西齋 有遺稿 孝廟辛卯十二月十日卒 壽八十二 贈戶曹參判 配高靈申氏 … 癸酉生 萬曆丁酉亂遇賊殉節即九月十七日也 翌年戊戌命旌 有一女 墓釜谷成夫人墓左良坐 延陵李好閔撰碣 ….”
- 93)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序, '大谷集序(柳根)'條.  
 “… 金君之胤子德民 乃與道內同志之士 來訪于公山 告以是事 夫以平生景仰之心 成此向所未遑之事 殆若有待於今日 安敢不加之意也 既爲之鳩材聚工 又助以供饋償役之費 再閱月而工告訖 諸公固要一言識其顛末 不敢以孤陋辭 竊取是集而讀之 … 萬曆三十一年二月下泮 正憲大夫 行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公州牧使後學柳根 書于錦水之新營.”
- 9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3年 5月 22(辛酉)日條.  
 “生員金德民上疏論成運尊慕李滉 鄭仁弘論議謬妄事 入啓 答曰 省疏 具悉.”
- 9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1月 16(辛亥)日條.  
 “忠淸監司朴彝敘馳啓 報恩縣地故處士成運 (成運以遺逸顯 學者稱爲大谷先生 大谷者自號也) 墳墓拔掘事 ….”
- 9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2年 1月 6(辛酉)日條.  
 “上畫講大學于文政殿 知事吳允謙曰 … 成運褒贈之事 曾已陳達 而至今寥寥 運是高蹈之士 操行卓異 一生足跡 不出山門 累徵不就 儒臣李滉以爲 高於曹植遠矣 宣廟特加禮遇 及聞病革 醫問交道 先朝優賢之意 可見矣 參贊官李廷謙 亦以爲合有褒贈 上許之.”
- 97) 宋浚吉 著, 『同春堂先生續集』, 卷6. 附錄1. 年譜, 丙申年 九月條.  
 “撰大谷成先生行狀.”
- 98) 成夏鼎 編, 『昌寧成氏世德錄』, 高啟: 晚翠堂, 1937. 卷2. 墓碣銘, 張11A-14A,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條.
- 99) 李中悅 編, 『乙巳傳聞錄』, '成遇傳'條.

仲兄을 哀悼하고 마침내 妻鄉인 忠淸道 報恩의 俗離山 기슭 鍾谷으로 移居하여 처남인 金天富 (1498-1584)와 함께 종신토록 이곳에서 은거하며 학문만을 연마하기에 이르렀다.<sup>100)</sup>

명종 8년(1553)에 57세의 나이로 光陵參奉에 除授되었으나 수일만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으며, 그 후로 명종 21년(1566)의 70세에 이르기까지 다시 10여년 동안 <大旱賦(并序)>·<送田上人> 등의 시를 비롯하여 <希庵(金泰巖)墓碣>·<柳氏(金碧妻)墓碣> 등의 墓碣과 <請文官邑宰疏>를 代作하면서 學問에 전념하였다.

그 동안 명종 21년(1566)에 生員·進士 중에서 經明·行修·純正·勤謹·老成·溫和 등 六條가 구비된 사람을 該曹가 4大臣에게 의논하여 4·5인을 뽑아 권면하도록 하라는 傳敎에 따라 '經明·行修'의 遺逸로 천거되었다. 당시 그의 薦目은 “前參奉 成運은 字가 健叔으로 진사에 합격하였으며, 成守琛(1493-1564)의 從弟이다. 인품이 온화하고 단아하며 도량이 넓어서 자연 圭角이 없고 남의 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중년에는 모친을 위하여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모친이 작고하자 결국 그만두었다. 報恩縣에 거주하면서 山水를 즐기고 琴書와 詩酒로 소일하였으며, 물건을 취하고 주는 데에는 의리를 지켰고 발차취가 官門에 이르지 않았으니 온 고을 사람이 모두 그를 추앙하였다. 그가 참봉에 제수되었을 적에는 대궐에 들어가 謝恩만 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sup>101)</sup>는 것이었다.

이러한 천거에도 불구하고 大谷이 老病을 핑계로 都城으로 올라오지 않자, 국왕은 “상당한 藥을 지어 보내어 조리할 것을 監司와 成運에게 하유하라. 그리고 병중에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題給할 것도 아울러 監司에게 하유하라.”<sup>102)</sup>라는 전교를 내렸다. 또한 大谷이 驛馬를 타고 都城에 도착하자 국왕은 該曹로 하여금 적의함을 헤아려 廩料를 題給하도록 傳敎하였는데, 당시 사관은 大谷에 대하여 “이때 나이 70이었는데 청렴하고 기개가 있었으며 의리가 아닌 일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이때에 비록 나와서 국왕의 은혜에 謝恩하기는 하였으나 老病을 핑계하여 상소를 올리고는 지레

“成運字健叔昌寧人 官至參奉 … 遇乃敢如是 請鞠 從之 拷訊 遇不服而死.”

100) 당시 大谷이 뜻을 버리고 妻家인 報恩 鍾谷리로 내려와 처남 金天富와 함께 隱居하며 學問을 연마하던 주택을 고종 24년(1887)에 후학들이 兩賢을 사모하여 慕賢庵이라는 현관을 걸었다. 건물은 목조기와집으로 건평은 25평이며, 大谷이 後嗣가 없어 이 건물은 현재 그의 妻家인 慶州金氏 宗中의 소유로 되어 있다  
10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6月 21(庚辰)日條.

“吏曹啓曰 生員進士中六條俱備人 該曹議于四大臣 得四五人 量用勸勵事 前日有傳敎矣 … 前參奉成運[字健叔 舉進士 成守琛之從弟也 爲人溫恭尊雅 稟度天然 自無圭角占 未嘗言人過惡 中年猶爲親應科 母沒遂廢家 居報恩縣 愛玩山水 以琴書詩酒自遣 取與有義 足迹不到官門 一鄉之人咸推仰之 其授參奉 詣闕謝恩 不就職] … 俱有才行 … 故竝啓 但此人中或有年老者 議于大臣 則皆以陞敍六品爲當云 取稟 傳曰 如啓.”

10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7月 26(乙卯)日條.

“政院啓曰 進士成運得病 趁未上來云 此乃特召之人 無乃送藥治療 使之上來乎 取稟 傳曰 … 相當藥劑 送加調理事 監司及成運處下諭 且病中可食之物題給事 竝諭于監司.”

떠나버리고 끝내 관직에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의 거취가 중도를 얻은 것이 여섯 사람 중에서 으뜸간다고 일컬었다. 戶曹가 7품의 녹봉을 제공하고 이날 별도로 中人을 大谷의 집으로 보내 御需인 酒饌을 특별히 하사하고 사은하지 말도록 명하였다. 그 御需는 평소三公에게 하사하는 규칙에 준하였는데 오히려 그보다 나왔다.”<sup>103)</sup>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부터 大谷은 通禮院引儀와 義盈庫主簿 및 造紙署司紙 등에 除授되었으나 한결같이 衰病을 핑계로 辭職을 上疏하자, 국왕은 “편리에 따라 내려가되 곧이 사직하지는 말라!”<sup>104)</sup>는 御札을 내리면서 內醫를 그의 집으로 보내 병을 살펴보고 아뢰도록 하였으며, 內醫가 병을 살펴보고 오자 政院에다 “內醫院으로 하여금 상당한 藥을 지어서 보내도록 하라.”<sup>105)</sup>고 傳敎하고 이어서 “상소의 사연을 여러 번 보니 정상을 알 만하다. 그런데 한 번도 접촉하여 보지 못하고 갑자기 시골로 돌아가기를 청원하니, 내 마음이 서운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지금 약을 하사하니 잘 치료해서 가야 한다. 꼭 시골로 내려가야 할 것은 아니니 윤택하지 않는다.”<sup>106)</sup>는 비답을 내렸다. 그러나 임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곡은 하향하였으며 두 달 뒤에는 마침내 遞職이 허락되었다.

선조가 즉위(1567)하면서 大谷은 處士인 南冥 曹植(1501-1572)과 前郡守 李恒(1499-1576) 등과 함께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선조 원년(1568)에 다시 국왕이 “어진이를 높이고 諫言을 받아들이는 것은 帝王의 미덕이니 다시 曹植을 부르고 아울러 成運도 부르라”<sup>107)</sup>는 備忘記를 내리고 이듬해(1569)에도 尙瑞院判官으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자<sup>108)</sup> 監司에게 명하여 存問하도록 하고 米肉을 하사하도록 하였다.<sup>109)</sup>

大谷은 선조 5년(1572) 2월 8일에 南冥이 향년 72세로 졸거하자 <南溟先生墓碣>과 <祭文>을

10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8月 16(甲戌)日條.

“上御朝講 … 成運時年七十 廉介智守 非義之事 一毫不爲 至是雖詣闕上恩 而托稱老病 上疏徑去 終不赴職 人稱其去就得中 爲六人之最云 戶曹依七品之俸而題給 是日別遣中人于運家 特賜酒饌御需也 命除謝恩 其數準於平時三公賜送之規 又優焉.”

10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9月 19(丙午)日條.

“… 御札答曰 … 隨便調行 宜勿固辭 [仍以御札授運以送.]”

10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9月 24(辛亥)日條.

“內醫看病而來 傳于政院曰 相當藥 令內醫院劑送于成運 ….”

10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明宗 21年 9月 24(辛亥)日條.

“… 仍答其疏曰 累觀疏辭 可識情懇 而一未接討 遽乞還鄉 予心缺焉 無以爲懷 今賜藥物矣 須善加將理而行 不必下鄉也 不允.”

10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1年 1月 27(丁丑)日條.

“備忘記傳曰 … 亦可賢賢納諫 帝王之美 更請曹植 並請成運 可也.”

10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2年 8月 1(壬寅)日條.

“以成運爲尙瑞院判官 召不至.”

109)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今上初 特徵累拜官不至 隆慶辛未 令監司存問給米肉 ….”

찬술하였으며, 선조 6년(1573)에는 災變을 만나 徵召되고<sup>110)</sup> 3품직에 제수되어<sup>111)</sup> 再三 불려도 사양하자 表裏와 사냥매(鷹) 등이 하사되고<sup>112)</sup> 제수가 유보되었다. 선조 8년(1575)에 질병으로 고생하자 국왕이 醫員을 보내고 藥을 하사하였으며<sup>113)</sup>, 선조 11년(1578)에는 司宰監正에 除授되고 쌀이 하사되었다.<sup>114)</sup>

이듬해인 선조 12년(1579) 5월 26일에 향년 83세로 卒去하여 報恩의 鍾谷에 葬事하자<sup>115)</sup> 조정에서 祭文이 하사되고<sup>116)</sup><sup>117)</sup> 牛溪에 의하여 <堂叔大谷先生墓碣記>가 撰述<sup>118)</sup> 되었으며, 左議政 蘇齋 盧守愼(1515-1590)은 조정에 大谷의 贈職을 청하기에 이르렀다.<sup>119)</sup>

大谷이 卒去한지 16년이 지나고 壬辰倭亂도 끝난 선조 28년(1595)에 “임진란 초에 三年山書院 뒤에 묻어 두었던 五聖과 八賢의 位版을 서원 안의 金淨(1486-1521)과 成運의 사당과 재실이 완전하니 位版을 옮겨 봉안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報恩縣監의 첩보가 조정에 보고되자 禮曹는 祝文을 보내 祭祀하고 位版을 옮겨 봉안하도록 回啓하였다.<sup>120)</sup>

- 
- 11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6年 1月 1(壬午)日條.  
“白虹貫日 下教求言 召成運·李恒 使乘傳上來 將問弭災之策 皆辭不至.”
- 11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6年 8月 1(戊申)日條.  
“成運·韓脩·南彥經 皆拜三品職 不次擢用也.”
- 112)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萬曆癸酉 下書特召者三 皆上章辭 超拜司瞻寺正 賜表裏一襲 命本道海郡輸送周急之資 且賜鷹 ….”
- 113)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乙亥得疾 上遣醫賚藥 ….”
- 114)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戊寅 拜司宰監正 又命賜粟 ….”
- 115)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己卯五月 疾篤 上命醫馳視未至 以其月二十六日卒 享年八十有三 命賜祭賻 官庀葬事 八月十七日 葬于鍾山 墓在舊廬南三里 ….”
- 116)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12年 12月 6(丁丑)日條.  
“徵士成運卒 [五月庚午日] 字健叔 自少力學 隱居三山縣之大谷 累被徵召 終不就列 壽八十三 學者稱爲大谷先生 上遣禮官賜祭 其祭文曰 ….”
- 117) 成渾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附錄. ‘賜祭文’條.  
“萬曆己卯六月日 自上賜先生祭文 ….”
- 118) 成渾 著, 『牛溪先生年譜』, 卷1. 牛溪先生年譜. ‘宣祖 12年 8月’條.  
“哭成大谷 (大谷諱運 聽松先生從弟 是歲 考終于報恩之鍾山 先生爲文遣人祭之 又撰其墓碣記).”
- 11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修 12年 7月 1(乙巳)日條.  
“上御經筵 … 時 禮官議成運贈爵 上問盧守愼 對曰 曹植·李恒·成運 同時賢士 而人品則不同 … 成運溫雅簡默 超然不嬰世 故常謙讓自守 爲一世完人 … 曹植已贈職矣 今先李恒 而次成運贈職當矣.”
- 12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宣祖 28年 6月 24(乙丑)日條.  
“忠清道觀察使尹承勳書狀 大概據報恩縣牒報 五聖八賢位版 壬辰變初 奉安囊內 埋置于三年山書院後 今則時勢稍異 書院內金淨·成運祠堂齋室完全 位版移安 何如 禮曹回啓 依狀啓 遣祝設祭而移安.”

大谷이 卒去한지 17년이 지난 선조 29년(1596) 가을에는 後嗣子인 一丘堂 金可幾(1537-1597)에 의하여 文集이 編纂<sup>121)</sup> 되었으며, 이로부터 7년 뒤인 선조 36년(1603) 2월에는 嗣孫인 澗西齋 金德民(1570-1651)이 충청도관찰사인 西垞 柳根(1549-1627)의 협조를 얻어 목판으로 3권 1책의 『大谷先生集』을 간행한 바,<sup>122)</sup> 이는 大谷이 卒去한지 24년만의 일이었다.

大谷이 卒去한 지 32년이 지난 광해군 3년(1611)에 이르러 鄭仁弘(1535-1623)이 上疏로 大谷을 貶下하자 嗣孫인 一丘堂이 이를 論駁<sup>123)</sup> 하였으며, 이듬해(1612)에는 忠淸監司 朴彞敍(1561-1621)에 의하여 大谷의 墓가 盜掘되었음이 馳啓<sup>124)</sup> 되기도 하였다.

또한 大谷이 卒去한 지 45년이 지난 인조 2년(1624)에 이르러 楸灘 吳允謙(1559-1636)의 建議로 褒贈이 允許되었으<sup>125)</sup>며, 大谷이 卒去한지 77년이 지난 효종 7년(1656)에는 同春堂에 의하여 〈行狀〉이 찬술<sup>126)</sup> 되고 大谷이 卒去한지 84년이 지난 현종 4년(1663)에는 尤庵에 의하여 〈大谷成先生墓碣銘〉가 撰述<sup>127)</sup><sup>128)</sup> 되었다.

### 3.3 大谷의 後嗣子 金可幾

〈大谷의 系譜〉에 보듯이, 大谷은 後嗣가 없어 門人이자 弟子이며 妻姪이자 姪壻인 一丘堂 金可幾(1537-1597)를 後嗣子로 맞았던 듯하다.

121)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序, ‘大谷集序(柳根)’條.

“先生隱居三山縣之大谷 屢蒙徵召 終不就列 享年八十有三 … 歲丙申秋 來泣此道也 金君可幾方在三山 蓋欲與之謀所以刊行先生詩集 而時屬多艱 力所未遑 常慊慊也 七年之後 又忝是職 而金君已下世 …”

122)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序, ‘大谷集序(柳根)’條.

“… 歲丙申秋 來泣此道也 … 七年之後 又忝是職 而金君已下世 金君之胤子德民 乃與道內同志之士 來訪于公山 告以是事 夫以平生景仰之心 成此向所未遑之事 殆若有待於今日 安敢不加之意也 既爲之鳩材聚工 又助以供饋償役之費 再閱月而工告訖 諸公固要一言識其顛末 不敢以孤陋辭 竊取是集而讀之 … 萬曆三十一年二月下泮 正憲大夫 行忠淸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公州牧使後學柳根 書于錦水之新營.”

12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3年 5月 22(辛酉)日條.

“生員金德民上疏論成運尊慕李滉 鄭仁弘論議謬妄事 入啓 答曰 省疏 具悉.”

12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1月 16(辛亥)日條.

“忠淸監司朴彞敍馳啓 報恩縣地故處士成運(成運以遺逸顯 學者稱爲大谷先生 大谷者自號也)墳墓拔掘事 …”

12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仁祖 2年 1月 6(辛酉)日條.

“上書講大學于文政殿 知事吳允謙曰 … 成運褒贈之事 曾已陳達 而至今寥寥 … 參贊官李廷謙 亦以爲合有褒贈 上許之.”

126) 宋浚吉 著, 『同春堂先生續集』, 卷6, 附錄1, 年譜, 丙申年 九月條.

“撰大谷成先生行狀.”

127) 宋時烈 著, 『宋子大全』, 卷172, 墓碣,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條.

“成氏古稱多賢 退陶先生所謂隱成 卽先生也 … 我思其由兮 惟曰有學 嗟後之人兮 其毋曰沮溺之儔匹.”

128) 成夏鼎 編, 『昌寧成氏世德錄』, 高欽: 晚翠堂, 1937, 卷2, 墓碣銘, 張11A-14A,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條.

〈大谷誌石〉의 誌文에 의하면 “부인은 承政院 左承旨로 추증된 慶州 金碧(?-?)의 딸이며, 선생은 아들이 없어 부인의 오빠인 金堤郡守 天富(1506-1548)의 아들이자 生員인 可幾를 양육하고 교육하여 증형인 遇(1495-1546)의 孤女를 그에게 시집보내고 인하여 家事를 부탁하였다.”<sup>129)</sup>고 기록하고 있으며, 牛溪의 〈堂叔大谷先生墓碣記〉에는 “선생은 副司直을 역임한 慶州 金碧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金氏가 報恩의 鍾谷에 거주하였으므로 그곳으로 가서 살았다. 아들이 없어 妻兄인 郡守 天富의 아들 可幾를 교육하여 兄의 딸로 아내로 삼도록 하여 後事를 부탁하였다.”<sup>130)</sup>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尤庵 宋時烈의 〈大谷成先生墓碣銘〉에는 “부인은 副司直을 역임한 慶州 金碧의 딸인데, 아들이 없어 선생의 妻孀인 天富의 아들 可幾를 姪壻로 맞아 後事를 맡겼는데 아마 일시의 便宜를 위해서였던가 보다. 可幾가 선생의 여러 문인들과 함께 고을의 동쪽 鍾谷 남녘기슭에 선생을 장례하였다.”<sup>131)</sup>고 기록하고 있으며, 同春堂의 〈大谷成先生行狀〉에는 “配位 慶州金氏는 … 承旨로 추증된 碧의 딸이다. 아들이 없자, 선생은 자신이 宗家の 嫡子가 아니라 하여 後嗣를 세우지 않고 부인의 오빠인 郡守 天富의 아들 可幾를 데려다 기르고 가르쳤다. 또 仲氏의 獨女가 일찍이 어버이를 잃은 孤兒가 되자 가엾게 여겨 可幾를 姪壻로 삼고서 뒷일을 부탁하였다. 可幾는 선생의 遺訓을 받들어 선생을 위하여 期年服을 입었으며, 그 아들 [德民]代까지 祭祀를 지냈다.”<sup>132)</sup>고 기록하고 있다.

大谷의 外曾孫인 白湖 尹鑄(1617-1680)의 〈外祖僉知中樞府事金公墓誌銘〉에도 “公의 諱는 德民이고 字는 邦良이며 … 증조는 忠武衛副司直을 역임하고 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된 碧이고 조부는 金堤郡守를 역임한 天富이며 부친은 생원으로 官이 尼山縣監에 이른 可幾이다. 初娶인 昌寧成氏는 大谷先生 運의 형인 遇의 딸이다. 大谷先生이 承旨公의 가문으로 장가들어 隱居할 때 더불어 살았다. 縣監公을 慈愛하여 아들처럼 教養하여 형의 딸로 妻를 삼도록 하여 後事를

129) 撰者不明, 〈有明朝鮮國通訓大夫司宰監正成公墓誌〉. 碣版. [製作地不明]: [製作者不明], [製作年不明]. “… 夫人慶州金氏(贈承政院左承旨) 諱碧之女 先生無子 取夫人之兄 金堤郡守天富之子 生員可幾養而教之以仲兄諱遇之孤女妻之 因託以家事云 ….”

130) 成渾 著, 『牛溪先生集』. 卷6. 雜著. ‘堂叔大谷先生墓碣記’條. “… 先生娶慶州金氏副司直碧之女 金氏居報恩鍾谷 先生就家焉 無子 教育妻兄郡守天富之子可幾 妻以兄之子 屬以後事 ….”

131) 宋時烈 著, 『宋子大全』. 卷172. 墓碣. ‘大谷成先生墓碣銘(并序)’條. “… 夫人慶州金氏 副司直碧之女 無子 先生以夫人兄天富子可幾 妻以兄子 託其後事 或謂一時之便也 可幾與諸生 葬先生于縣東鍾谷之南麓 ….”

132) 宋浚吉 著, 『同春堂先生文集』. 卷20. 行狀. ‘大谷成先生行狀’條. “… 孀曰慶州金氏 新羅敬順王之後 贈承旨碧之女 無子 先生自以非宗嫡 不立後 取夫人之兄郡守天富之子可幾 養而教之 又哀仲氏一女早孤無依 以可幾妻之 托以後事 可幾承遺教 服先生以期 祭至其子之身 ….”

부탁하였다. 아들이 없자全州柳氏에게 後娶하였는데 承政院左承旨에 추증된 潤祥(1505-?)의 딸이다. 공은 그 出生이다.”<sup>133)</sup>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의 기록들을 통하여 볼 때, 大谷은 後嗣가 없어 門人이자 弟子이며 妻姪이자 姪壻인 一丘堂 金可幾를 後嗣자로 맞았음을 알 수 있다.

<表 4> 一丘堂 金可幾(1537-1597)의 系譜

<p>金將有(慶州中祖) - 仲南(02) - 乙湜(03) - 湑(04) - 處庸(05) - 曾孫(06) - 碧(07)<sup>134)</sup> - 天富<sup>135)</sup> · 女成運<sup>136)</sup>  (08) - 可幾(09)<sup>137)</sup> - 德民(10)<sup>138)</sup><sup>139)</sup> - 鈺(11) - 君弼(系子, 12) - 喜鼎(13) - 瑒(14) - 萬潤(15)  - 陽采(系子, 16) ... (斷)</p>
--

- 133) 尹鏞 著, 『白湖先生文集』, 卷18. 墓誌銘. '外祖僉知中樞府事金公墓誌銘(並序)'條.  
“公諱德民 字邦良 … 曾祖諱碧 忠武衛副司直贈承政院左承旨 祖諱天富 金堤郡守 考諱可幾 生員官至尼山縣監 初娶昌寧成氏 卽大谷先生運之兄遇之女也 大谷先生聘于承旨公之門 遜於時 仍贅居焉 愛縣監公 教養之如子 妻以兄子 託以後事 卒無子 後娶全州柳氏 贈承政院左承旨潤祥之女 公其出也 …”
- 134)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卷1, 張2AB. '碧'條.  
“碧: 字孟仁 官副司直 忌六月十六日 贈左承旨 配文化柳氏 父修義副尉依江 祖孝老 曾祖提學夷 外祖萬戶成 昌金孟孫 十一月三十日卒 [嘉靖三十四年十一月晦日 以疾終] 壽七十七 墓先兆下雙封 朴司成光佑撰考位碣銘 成大谷運撰妣位碣銘.”
- 135)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卷1, 張2AB. '天富'條.  
“天富: 字大蘊 弘治戊午生 正德己卯進士 官金堤郡守 萬曆甲申四月十三日卒 壽八十七 贈掌樂正 墓郡北鍾谷後妙洞子坐 配新平李氏 父縣令玉拳 祖翰忠 曾祖直長脫生平章公后 丁巳生 己卯八月九日卒 墓同原在後 按墓表云 居家孝友 莅官清慎 遺誠薄葬 不願稱述.”
- 136)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卷1, 張5B. '女成運'條.  
“女成運: 昌寧人 字健叔 父府使世俊 大提學石珥五世孫 弘治丁巳生 嘉靖辛卯俱中生進 隱居鍾山之大谷 明宣兩朝累徵不起 官司宰監正 號大谷 己卯五月二十六日卒 壽八十三 贈左承旨 墓鍾谷釜谷丑坐附 尤菴撰墓碣銘 享本縣象賢書院 無子收養妻兄子可幾托後事.”
- 137)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卷4, 張1AB. '可幾'條.  
“可幾: 字士元 嘉靖丁酉生 萬曆己卯生員 官魯城縣監 丁酉九月十七日卒 贈左承旨 配昌寧成氏 父參奉遇 祖副使世俊 曾祖贈吏曹判書忠達 外祖祭訪和順崔世演 忌三月二十日 無嗣 墓府君墓左岡丑坐 配全州柳氏 父承旨潤祥 祖修義副尉轅 曾祖承旨季潼 外祖縣監韓山李穩 丁酉九月十七日卒 墓報恩鍾谷南釜谷成大谷兆下丑坐附.”
- 138)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卷4, 張1A-2A. '德民'條.  
“德民: 字邦良 隆慶庚午生 受業於趙重峰 萬曆丙午生員 官龍宮縣監 僉知中樞府事 號潤西齋 有遺稿 孝廟辛卯十二月十日卒 壽八十二 贈戶曹參判 配高靈申氏 父大司憲拙齋湜 祖左贊成冲淹 曾祖吏曹參判淑 外祖縣監先州盧堽 癸酉生 萬曆丁酉亂遇賊殉節卽九月十七日也 翌年戊戌命旌 有一女 墓釜谷成夫人墓左良坐 延陵李好閔撰碣 配海州吳氏 父贈領議政希文 祖左贊成景閑 曾祖吏曹判書玉貞 外祖郡守延安李廷秀 忌十二月十九日 墓縣北梅岳呂洞卯坐附.”
- 139) 尹鏞 著, 『白湖先生文集』, 卷18. 墓誌銘. '外祖僉知中樞府事金公墓誌銘(並序)'條.  
“公諱德民 字邦良 … 曾祖諱碧 忠武衛副司直贈承政院左承旨 祖諱天富 金堤郡守 考諱可幾 生員官至尼山縣監 初娶昌寧成氏 卽大谷先生運之兄遇之女也 大谷先生聘于承旨公之門 遜於時 仍贅居焉 愛縣監公 教養之

一丘堂은 慶州金氏의 中祖이며 版圖判書를 역임한 金將有(?-?)의 8세손으로 字는 士元이며 號는 一丘堂이다. 高조는 金處庸(?-?)이고 증조는 金曾孫(?-?)이며 祖父는 副司直을 역임한 金碧이다. 父親은 金堤郡守를 역하고 掌樂正에 추증된 金天富(1498-1584)이며, 모친은 縣令을 역임한 新平 李玉拳(?-?)의 딸이다.

一丘堂은 中宗 32년(1537)에 출생하여 선조 12년(1579)에 43세의 나이로 己卯式年司馬試에 生員 1등에 합격하여 魯城(尼山)縣監을 역임하였다. 그 후에 大谷의 文集編纂에 몰두하던 중 선조 30년(1597)의 丁酉再亂에 마을에 침입한 倭賊에 對抗하다 동년(1597) 9월 17일에 殉節하였다. 당시 부인 全州柳氏(?-1597)는 남편을 구하려다 순절하고 子婦인 高靈申氏(1573-1597)도 피난 중에 倭賊을 만나 自決하여 一家의 3인이 同日에 殉節하였다. 선조 31년(1598)에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兼 經筵參贊官에 증직되고 柳氏夫人은 淑夫人으로 추증되었으며 子婦 高靈申氏에게는 旌閭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大谷이 門人이자 弟子이며 妻姪이자 姪壻인 一丘堂으로 後嗣한 處事를 두고 당시는 물론 後世에도 議論이 紛紛하였던 듯하다. 그것은 원래 ‘立後’<sup>140)</sup>는 同宗의 枝子에서만 後嗣를 맞이하는 것이 慣習이었으나, 大谷의 경우는 同宗이 아닌 妻宗의 枝子에서 後嗣를 맞이함으로써 禮制와 차이가 있었던 때문인 듯하다.

大谷의 이러한 後嗣問題에 대하여 來菴 鄭仁弘(1535-1623)과 澤堂 李植(1584-1647) 및 尤庵 宋時烈(1607-1689) 등은 賈充<sup>141)</sup>의 悖倫과 같이 正道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매우 批判的인 立場을 취하였다.

尤庵은 그의 제자인 鹿川 李濡(1645-1721)가 이러한 문제점을 書簡으로 질의하자 <答李子雨>에서 “別紙에서 질의한 것은 어찌 다른 사람에게 질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朱子가 外孫이 奉祀하는 것도 오히려 親族이 아닌 제사라 하여 배척하였는데, 하물며 妻兄弟의 아들이겠는가! 成大谷이 妻弟의 아들로 제사를 받들게 하였는데, 澤堂이 賈充(217-282)의 悖倫<sup>142)</sup>과 같다고 기롱하였다가

如子 妻以兄子 託以後事 卒無子 後娶全州柳氏 贈承政院左承旨潤祥之女 公其出也 ….”

140) 立後: 자식이 없는 사람이 그 後代를 잇기 위하여 同宗의 枝子를 세워 後嗣로 하는 것으로 尊屬이나 형제항렬이나 尊위항렬에서는 立後하지 못하며 다만 徃行에서만 後嗣를 맞이하는 것이다.

141) 賈充(217-282): 晉武帝 때에 大都督까지 역임한 인물로 일찍이 道場人 韓壽가 그의 아전이 되었다. 賈充의 딸 賈午가 韓壽를 미모를 보고 좋아하여 황제가 賈充에게 하사한 사람이 한 번 품으면 한 달이 지나도 향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奇香을 훔쳐다 韓壽에게 주자 賈充이 이를 알고 韓壽를 사위로 삼았다. 후일에 賈充이 後嗣가 없자 韓壽의 아들이며 외손인 韓謐을 후사로 삼았는데, 秦秀가 ‘大倫을 어지럽혔다’고 논박하였다. 그것은 異姓을 後嗣로 삼는다는 禮文도 없으며, 異姓을 後嗣로 삼는다면 곧 絶宗이 되는 것이라 여겼던 때문이다.

142) 賈充: 晉의 賈充이 일찍이 그의 딸 賈午가 韓壽를 미모를 보고 좋아하여 황제가 賈充에게 하사한 奇香을 훔쳐다 韓壽에게 주자 賈充이 이를 알고 韓壽를 사위로 삼았다. 후일에 賈充이 後嗣가 없자 韓壽의 아들이며

成氏들과 尹氏들 및 그 妻族들에게 큰 辱을 받았네. 그러나 澤堂의 議論은 끝내 변동될 수 없는 것일세. 또 無後한 사람이 그 祖廟<sup>143)</sup>에서 耐食<sup>144)</sup>하는 것은 이미 朱子의 成法이 있고 『家禮』는 오로지 宗法을 위주로 하였으니, 어찌 이를 어길 수 있겠는가. 보내온 書簡에서 인용한 國典에 ‘아내가 자기의 同族을 길러 子女로 삼아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운운한 것은 전혀 의리도 아니고 말도 되지 않네. 자기의 동족을 아들로 삼아 제사를 받들게 하는 것도 오히려 안 되거늘 하물며 딸로 삼아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겠는가. 어찌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文字의 착오일 것이니, 다시 세밀히 상고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오늘날 朱子를 본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극히 世道에 해독이 되고 있으니, 바라건대 睿監은 이를 인연하여 일체 朱子의 『家禮』로 正法을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sup>145)</sup>라고 하였다.

반면에 來菴과 澤堂 및 尤庵 등과는 달리 大谷의 再從姪婿인 魯西 尹宣舉(1610-1669)와 一丘堂의 外曾孫인 白湖 尹鑰(1617-1680)는 사실에 근거하여 友好的인 立場을 취하고 있는 바, 魯西의 立場은 『魯西先生遺稿』의 〈答羅顯道〉<sup>146)</sup><sup>147)</sup>와 〈記成大谷立後事〉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白湖의 立場은 『白湖全書』의 〈辛巳孟冬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魯西先生遺稿』의 〈記成大谷立後事〉에 나타나는 魯西의 立場과 見解는 다음과 같다.

斯門의 참봉 成遇(1495-1546)는 大谷先生의 제3형이다. 文德과 節行으로 일찍이 세상에 이름이 났으나 불행히도 을사사화(1545)로 禍를 입자, 선생은 妻家인 金門의 莊園이 있는 鍾谷으로 은거하였다. 선생이 연로하도록 아들이 없자 後嗣를 세우지 않고 參봉의 딸로 처조카인 金可幾에게 출가시켜

외손인 韓謐을 후사로 삼았는데, 秦秀가 ‘大倫을 어지럽혔다’고 논박하였다. 그것은 異姓을 後嗣로 삼는다는 禮文도 없으며, 異姓을 後嗣로 삼는다면 곧 絕宗이 되는 것이라 여긴 것이다.

143) 祖廟: 祖上의 靈魂을 모시는 祠堂을 의미하는 것이다.

144) 耐食: 子孫이 없는 亡者를 祖廟에 班耐하여 祭祀를 享食하도록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45) 宋時烈 著, 『宋子大全』, 卷99, ‘答李子雨(戊辰六月十一日)’條.

“... 別紙所詢 此何足問於人者 朱子以外孫奉祀 猶以爲非族之祀而斥之 況妻之兄弟之子乎 成大谷以妻弟之子奉其祀 澤堂譏之以賈充之悖 大爲諸成諸尹及其妻族所詬罵 然澤堂之論 終是不可易者 且無後人耐食其祖廟 自有朱子成法 而家禮一書 專主於宗法 何可違也 來書所引國典妻養已族 爲子女奉祀云云者 全不成義理 全不成說話 夫以己族爲子而奉祀者 猶爲無理 況爲女而奉祀 寧有是耶 此必文字之誤 更須細考如何 今日朱子不足法之說 極爲世教之害 幸望令監因此而一以朱禮爲法 如何如何.”

146) 羅顯道: 羅良佐(1638-1710)를 지칭하는 것이다. 本貫은 安定이고 字는 顯道이며 號는 明村이다. 祖父는 羅萬甲이고 父親은 牧使 羅星斗이며 尹宣舉의 門人이다

147) 尹宣舉 著, 『魯西先生遺稿』, 卷10, 書, ‘答羅顯道(良佐)’條.

“改題事 既有立後之議 則即當立後啓下而改題 如禮矣 書顯辟者 謂本族無他主者也 既有宗子 則姑爲班耐而以宗子之屬稱之如何. 從祖姑夫妻之祭 與金龍宮家祀大谷先生事同 尤齋之論以爲拖至累代則太長云 故其家祭三代而止云 似當依此行之矣 代盡之祖墓祭 一歲一祭則不可廢也 若宗孫貧不能祭 則宜依家禮 合墓下子孫之田 以爲歲一祭之需 此實賢孝學古之士汲汲講行者也 如何如何. 山所各處 前期行祀之禮 前賢已有行之者 依行無妨 既已行事 則當日寥寥 有何未安也 墓祭非有故 則禮當行於墓前 紙榜合祭恐未安.”

家業을 부탁하였다. 가만히 선생의 마음을 생각건대, 형이 壽命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애통히 여겨 그의 딸을 양육하여 金門으로 출가시켜 家業을 전승하도록 하였으니 그 얼마나 인자한 일인가! 鍾谷의 논밭과 노비는 본래 金門에서 온 것이라 하여 처조카에게 되돌려 주어 형의 딸과 공유하도록 하였으니 그 얼마나 正義로운가! 평소에 선생의 이러한 일처리는 의심할 바 없을 것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尤齋<sup>148)</sup>가 선생의 墓碑를 찬술하면서 後事의 구절에 이르러 ‘편의대로 처리한 듯하다!’고 하였는데, 나는 이것이 지나친 표현이라 여겨 『昌寧世譜』의 ‘參奉女婿金可幾’조를 참작하여 이를 訂正하고자 한다. 尤齋는 ‘딸을 양육하여 後嗣로 세우는 것도 바른 禮法이 아니거늘, 더욱이 그 딸이 일찍 사망하자 金公이 再娶를 하였음에라!’고 하였으나, 나는 ‘형의 자식을 제 딸처럼 양육하는 것도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늘 더욱이 출가시켜 남을 얻었음에라!’고 하겠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부득이한 경우이며 심지어 그 딸이 일찍 사망하여 자식도 낳지 못하였으니, 이 또한 불행 중의 불행으로 선생도 어찌할 수 없는 天命이었던 것이다. 尤齋의 견해도 애초에는 그러하였을 것이나 金子琢<sup>149)</sup>을 통하여 알아보니 ‘선생의 立券文書에 이러한 일이 소상히 밝혀져 있는데 그대의 견해와는 같지 않은 듯하다. 운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도 적이 알아보았으나 오래토록 그 의심을 풀지 못하던 차에, 근자에 子琢을 통하여 그 문서에 ‘나는 너를 아들처럼 여기고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겨 너의 當代까지만 祭祀하라! 운운.’한 말이 있음을 듣고 나는 비로소 의심이 환히 풀렸다. 마음속으로 ‘너의 當代까지만 祭祀하라!’는 은미한 뜻을 짐작할 수는 있으나, 어찌하여 李澤堂<sup>150)</sup>의 지적처럼 ‘孫代까지 祭祀하라!’고 하지 않고 ‘當代까지만 祭祀하라!’고 하였던 것인가? 아마 親族間의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처조카에게 제사를 부탁한 것이라기보다는 애초에 종가의 맏아들이 아니라 後嗣를 세울 필요가 없었으므로 조카사위에게 부탁하였던 뿐일 것이라. 문서의 작성도 시속을 따랐을 뿐, 이 또한 선생이 폐인이 되어 권도에 맞추려는 한 가지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이러한 견해를 市南<sup>151)</sup>에게 질의하자 그도 옳은 생각이라 하였다. 일찍이 峒隱<sup>152)</sup>공이 後嗣가 없어 사람들이 後嗣를 세울 것을 권하자 峒隱은 ‘支子를 後嗣로 세우는 것은 禮法에 허용되지 않는 바이니, 나도 養子에게 음식을 구걸하기보다는 차라리 祖廟에서 祔食<sup>153)</sup>하겠다면 모든 家産을 宗家の 맏아들에게 주고 班祔<sup>154)</sup>하였다.’고 들은 바 있다. 선생이 後嗣를 세우지 않은 것도 峒隱의 의리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나, 가산을 종가의 맏아들에게 주고 싶어도 그것이 본래 金門의 것이었으니 어찌할 도리가 있었겠는가? 班祔의 禮가 당연하였을 뿐 아니라 家産도 논급할 바 아니었을 것이며, 班祔의 어려운 祭禮가 세속의 폐단이었던 만큼 선생의 뜻도 깊은 사려에서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러므로 선생과 峒隱의 경우에 비록 事案은 달라도 그 義理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 148) 尤齋: 宋時烈(1607-1689)의 號이다. 本貫은 恩津이고 字는 英甫이며 號는 尤菴·尤齋 등이며 諡號는 文正이다. 朱子의 學說을 계승하고 교의를 신봉하며 실천하는 것으로 평생의 사업을 삼았던 學者이다.
- 149) 金子琢: 金鎬(1607-1674)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의 본관은 慶州이며, 숙종 11년(1685)에 『慶州金氏版圖判書公派族譜』를 木板으로 간행할 때에 大谷의 妻男이자 그의 祖父인 金天富(1506-1548)와 함께 族譜의 板下本을 書寫한 인물이다.
- 150) 李澤堂: 李植(1584-1647)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의 본관은 德水이고 字는 汝固이며 號는 澤堂·南宮外史·澤癯居士 등이고 諡號는 文靖이다.
- 151) 市南: 俞樾(1607-1664)의 號이다. 본관은 杞溪이고 字는 武仲이며 시호는 文忠이고 金長生의 門人이다.
- 152) 峒隱: 李義健(1533-1621)의 號이다. 본관은 全州이고 字는 宜中이며 시와 글씨에 능하였다.
- 153) 祔食: 子孫이 없는 亡者를 祖廟에 班祔하여 祭祀를 享食하도록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154) 班祔: 祭祀를 받들 자식이 없는 사람의 神主를 祖父 行列의 다른 神主에 붙여서 從位로서 合祀하는 제례로 旁親班祔의 禮라고도 하며, 이때 班祔된 사람은 祔祭人 또는 祔享者로 불린다.

마땅히 碑文 중에 ‘형의 딸을 처조카에게 出嫁시켜 家事를 부탁하였다(取兄女嫁妻姪以付家事)’는 한 구절을 첨가하여, 先生의 은미한 뜻을 천명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의혹을 타파시키고 잘못 인식된 士林의 議論을 종식시키고자 하려니 어찌 여기시는가!<sup>155)</sup>

또한 「白湖全書」의 〈辛巳孟冬書〉에서 白湖는 “先生이 手書한 家傳을 보면 養父라 暮年만 입고 神主도 만들지 말며 墓前에서 제사하되 當代에 끝내라고 재삼 당부하였다. 先生이 기른 분이 실은 나의 外曾祖父인데, 神主를 만들어 祠堂에서 제사를 모신 것은 外曾祖父 자신이 人情으로 한 일이지 先生의 뜻은 아니었다. 이를 仁弘이 선생의 뜻을 잘 몰랐으며, 澤堂의 言辭는 더더욱 선생을 너무나 모르고 한 말이므로 後人들의 참고를 위하여 그 대략을 기록한다.”<sup>156)</sup>면서 자신의 立場과 見解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成氏家門에 子姪들이 매우 많았으나, 그 부인이 立後를 반대하여 妻弟의 아들인 金某를 假子로 삼고 그에게 總麻服을 입고 喪主를 하였는데 金某가 自意로 暮年服을 입었다. 金某와 成氏는 서로 路人일 뿐인데 服은 무슨 服이란 말인가. 일찍이 參議 禹伏龍(1547-1613)이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여 남겼는데, 그 후에 鄭仁弘이 廢主에게 ‘金氏의 아들을 先賢의 자손으로 기록하여 지금 3대로 官爵을 지내고 있어도 조정에서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을 얹으며 그의 집에서는 이를 대단히 좋게 여겨 그를 百世不遷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으니 이러한 일은 賈充도 하지 않을 짓’이라고 아뢰었다. 南冥과 大谷은 세상에 드문 高士들이고 方丈山과 俗離山은 우리나라의 箕山과 潁水인데 불행하게도 일개 仁弘 따위가 나와 그 淸風을 더럽혔으니, 千古를 두고 웃음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sup>157)</sup>

155) 尹宣舉 著, 『魯西先生遺稿』, 卷14, 雜著, ‘記成大谷立後事’條.

“斯文成參奉遇 大谷先生之第三兄也 文德節行 早名於世 不幸被禍於乙巳 故先生遐遜于鍾山之谷 谷是先生贅家金氏莊也 先生老而無子 不復立後 乃取參奉之女 嫁于妻姪金公可幾 而付以家業焉 窃想先生心事 痛兄非命 育其女而歸于金 以傳其業 仁也 鍾谷田民 本自金來之物也 還付諸妻姪 俾與兄女共之 義也 嘗謂先生處置非所可疑也 及乎尤齋之撰先生墓碑也 後事一款 以便宜處斷爲言 愚乃以右意諗之 仍取昌寧世譜中參奉女壻金可幾一條以訂之 則尤齋曰 養女爲後 非禮之正也 且其女早亡 而金公改娶云矣 愚又應之曰 兄之子 養之猶女 誠有所不忍人者 而妻之得人 處之如斯 蓋出於不得已也 至於其女早亡不育 則又是不幸之不幸 先生之不可奈何者天也 尤意初然之 既而曰 審諸金子琢 則先生立券 昭在於其處 與君所見不同云云 愚窃訝之 久而不釋 頃對子琢 聞其券中之辭 曰余視汝猶子 汝視余猶父 祭止於汝身云云 愚始釋然 心自語曰 祭止汝身 微意可知 果爲情私所牽 托奉祀於妻姪 如李澤堂之所論 則何不曰世祭而要止於一代乎 蓋已非宗子 不必立後 故分付於姪女夫而已 券文之成 只循俗耳 此亦先生廢中權之一事也 仍以是說 質諸市南 則市南亦印可矣 嘗聞李峒隱公無嗣 人勸之立後 峒隱曰 支子立後 禮所不許 且吾求食於螟子 毋寧耐食於祖廟也 盡以家資付之宗子而班耐焉 先生之不立後 亦如峒隱之義 而家資欲付宗子 則奈彼本是金家之物何 班耐禮之當然 家資非所與論 而班耐之難祭 世俗之通患 先生之意 又安知非不出於慮患之深耶 然則先生之與峒隱 異事而同義也 當就碑文中 添却取兄女嫁妻姪 以付家事一款語 以闡先生之微意 以破世人之疑惑 不識士林諸議終以爲如何也.”

156) 尹鑄 著, 『白湖全書』, 卷33, 雜著, ‘辛巳孟冬書’條.

“… 得先生手書家傳者 稱以養父 使服葺 不作主 祭於墓不繼 再三丁寧之 卽先生之意可見矣 … 余外曾祖父實爲先生所養者 作主廟祀之 寔外曾祖自以情行之 非先生意也 … 是仁弘未嘗知先生意 而澤堂之言尤爲不知先生之甚者 故略記之以與後人 ….”

이를 통하여 볼 때, 大谷이 자신의 門人이자 弟子이며 妻姪이자 姪壻인 一丘堂 金可幾를 後嗣로 맞아들이는 問題는 당시는 물론 후세의 내로라는 禮家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듯하다.

그 중에서도 尤庵 宋時烈과 魯西 尹宣學는 朝鮮 禮學의 大家인 沙溪 金長生(1548-1631)의 門下에서 同門修學한 인물들이나, 大谷의 後嗣問題에 있어 상호간에 異見을 피력한 점은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4. 結 論

이상에서 大谷 <成運誌石>을 중심으로 考察한 바, 이를 要約하여 結論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誌石은 被葬者의 本貫과 諱, 先祖의 系譜와 行蹟, 生沒事項, 家族關係, 墓의 位置와 坐向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同時代의 歷史的 事實을 연구하는데 매우 귀중하게 활용되는 金石學資料이다.

(2) <成運誌石>의 被葬者인 大谷 成運(1497-1579)의 本貫은 昌寧이고 字는 健叔이며, 號는 大谷·虛父·三山病人·夏山後學 등이고 諡號는 文景이다. 연산군 3년(1497) 정월에 出生하여 선조 12년(1579) 5월에 향년 83세로 卒去하여 忠北 報恩의 鍾谷에 葬禮되었다. 평생토록 報恩의 鍾谷에 隱居하며 學問에 전념한 山林學者이었다. 그의 墓所와 墓碣은 忠北 報恩郡 報恩邑 城足里 山35에 所在하며, 현재 忠北 記念物 第70號로 指定·管理되고 있다.

(3) <成運誌石>의 標題는 ‘有明朝鮮國通訓大夫司宰監正成公墓誌’이며, 誌石은 7枚의 磁版으로 구성되어 있고 誌文은 每版의 單面에만 기록되어 있다. 誌石의 規格은 24.8×18.2×1.0cm 내외이며, 每版의 後面에는 ‘第幾’의 枚次가 기록되어 있다.

(4) <成運誌石>에는 誌文의 撰述과 誌石의 製作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나, 誌文은 大谷의 嗣子인 一丘堂 金可幾가 『朝鮮王朝實錄』의 <大谷處士成運卒記>와 牛溪 成渾의 <堂叔大谷先生墓碣記> 등을 바탕으로 撰述한 것이 아닌가 한다.

(5) <成運誌石>에 나타나는 자신의 門人이자 弟子이며 妻姪이자 姪壻인 一丘堂 金可幾를

157) 尹鑄 著, 『白湖全書』, 卷33. 雜著. ‘辛巳孟冬書’條.

“... 成氏一門子姪甚衆 而內氏不許立後 乃以妻弟之子金某爲假子 使之服總奉喪 而金自以意服暮年 金於成爲路人 有何服制可言 禹參議伏龍嘗記此說而識之 其後仁弘啓廢主 以金之子錄爲先賢子孫 今三代而好做官爵 朝廷不思刊正 其家大以爲利 定爲百世不遷之祖 此實賈充之所不爲也 南冥大谷曠世高士 方丈俗離爲東國箕穎 不幸鑄出一仁弘 汚衊清風 豈不爲千古笑端乎.”

後嗣子로 맞아들인 大谷의 後嗣問題는 당시는 물론 후세의 내로라는 禮家들의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듯하다. 그 중에서도 尤庵 宋時烈과 魯西 尹宣舉는 朝鮮 禮學의 大家인 沙溪 金長生(1548-1631)의 門下에서 同門修學한 인물들이나, 大谷의 後嗣問題에 있어 다소 意見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成運誌石>은 被葬者인 大谷 成運의 傳記資料로 그의 研究에 매우 귀중한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地方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管理·保存할 만한 충분한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 <참고문헌>

- [撰者不明]. <有明朝鮮國通訓大夫司宰監正成公墓誌>. [製作地不明]: [製作者不明], [製作年不明]. 金鼎九 編. 『慶州金氏世譜』. 報恩: 坪浦齋, 大正 15(1926).
- 成斗鎬 等編. 『昌寧成氏文行列傳』. [昌寧]: [牛項齋], [高宗 37(1900)].
- 成濯 編. 『昌寧成氏族譜』. 木活字本. 羅州: 成濯, 昭和 4(1929).
- 成夏鼎 編. 『昌寧成氏世德錄』. 高敞: 晚翠堂, 1937.
- 成運 著, 金可幾 編. 『大谷先生集』.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宣祖 36(1603)]. 『韓國文集叢刊』 第28冊 所收.
- 成渾 著. 『牛溪先生集』.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海君 13(1621)]. 『韓國文集叢刊』 第43冊 所收.
- 成渾 著. 『牛溪先生年譜』.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顯宗 5(1664)]. 『韓國文集叢刊』 第43冊 所收.
- 宋時烈 著. 『宋子大全』.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正祖 11(1787)]. 『韓國文集叢刊』 第108-116冊 所收.
- 宋浚吉 著. 『同春堂先生文集』.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肅宗 13(1687)]. 『韓國文集叢刊』 第106-107冊 所收.
- 尹宣舉 著. 『魯西先生遺稿』.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1927]. 『韓國文集叢刊』 第120冊 所收.
- 尹鑄 著. 『白湖先生文集』.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肅宗 38(1712)]. 『韓國文集叢刊』 第123冊 所收.
- 曹植 著. 『南冥先生集』. [發行地不明]: [發行處不明], [光海君 1(1609)]. 『韓國文集叢刊』 第31冊 所收.
-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影印本.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 韓國古典翻譯院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檢索.